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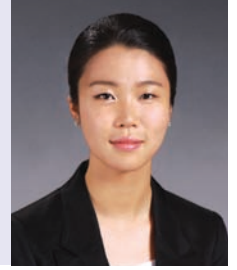


문화 그 자체의 일상적 언어로의 확장

-PLACEMAK, PLATOON KUNSTHALLE를 중심으로

오중현 | 9기 학생기자,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주예 | 9기 학생기자, 한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두 곳은 닮은 점도 다른 점도 많다.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 해결책을 제안했고, 새로운 문화공간의 도시적 파급효과를 보이지만, 주요 대상은 다르다. 일상의 자유로운 침범이 발생하지만, 규모도 환경도 너무 다르다. 어쩌면 두 공간의 탄생과 해석의 전 과정을 함께 논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에 던지는 문화공간의 핵심을 도출하고 싶었다.

두 공간의 탄생과 진행, 해석의 전 과정을 번갈아 가며, 우리 일상에 초대로의 연극을 구성하고자 한다.

[Stand by를 알리는 무대 뒤]

도시와 지역의 활성화는 건축과 도시의 세련된 디자인과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지역의 특색을 도출해,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이벤트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며 그 지역의 보물을 만들어 가는 일이 많다.

혹자는 도시에 문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지만 '문화'는 여전히 도시를 지탱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도시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은 '문화'라는 단어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최근 도시에 포화된 문화공간에서 벗어난 '문화의 변두리'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재생 가능성이 연구되고 예술가들의 이동을 통해 곳곳에 문화의 향기가 퍼져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 표현의 공간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예술활동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화'는 강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 가능한 문화공간을 통해 그들 생활 안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적 역할로서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능력이 있다. 과거 무채색의 도시는 '문화공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고 그들 사이에 문화의 소통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도시를 변화, 재생시키고 있다.

[제 1막: www.placemak.com 속 '게시판']

글 제목: 연남동 주민입니다.

글 내용: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연남동 주민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재미있는 곳이 생겼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너무 좁고... 들어갔다가 어색하게 있다가 돌아갈 것 같아서 머뭇머뭇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 드리고 들어가고 다음에 올 때는 뭘 하면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연남동 주민님. 저희 공간은 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를 하는 예술공간입니다. 허나 무거운 예술에 대한 경계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공간적 바람도 함께 합니다. 좀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옆집 세탁소나 편의점, 떡집이나 철물점을 들르시듯,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저희 플레이스막(PLACEMAK) 식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많은 인근 주민 분들도 지나가다 들르셔서 놀다 가시곤 하시니 부담 없이 '자유로운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지나시는 길 있으시면 살포시 들려주세요. 저희 공간에 대한 유연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플레이스막의 자유로운 일상



시장 한 칸에 마련된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



플레이스막의 내부



소소한 골목길을 고스란히 담은 '플레이스막'

[제 2막: Sub culture를 표방한 PLATOON KUNSTHALLE]

Sub culture는 확장된 의미로, 예술에서 더 나아가 융합복합매체 예술 운동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창조적인 예술표현을 포괄하는 것이다. 스트리트 아트나 그래픽 디자인, 클럽문화, 음악, 비디오아트, 프로그래밍, 패션, 정치적 액티비즘 등 다양한 현대적인 혁신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피하는 것, 정형적인 순수 예술과는 다른 영역에서의 창조적인 문화 예술방식을 이루는 표현이다.

[제 3막: 예술의 불모지 그리고, PLACEMAK의 탄생]

플레이스막은 그대로 막장이다. 지금 바로(막) 무엇인가 마구(막) 펼칠, 막(幕)을 올릴 수 있는 장(場), 막상(막) 전시를 보러 가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막(膜)에 현기증을 느끼는 대중들을 위해 플레이스막은 순수하고 거침없는 막(幕)을 올릴 것이다. 막은 이런 성향을 지녔다. 주저 없고, 거칠지만 대중이 자진해 걸어치울 수 있는 막이 되고자 한다. 막을 걷어 안을 들여다보곤 그곳에서 그들의 수많은 예술적 양상을 찾아 꺼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플레이스막의 미션이다. 문화예술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여러 단체들의 페스티벌, 예술관련 행사 등 대중들과 예술을 나누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인끼리의 장, 잔존해 있는 엘리트주의, 많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등의 모순이 만연하다. 사립 갤러리들의 전시 들리기는 이벤트가 될지언정 일상은 될 수 없다. 예술시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변질 되어버린 갤러리들의 현실이 과연, 대중들과 예술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술 소외에 익숙해진 사람의 단기적 허세의식을 채우기 위한 미술전시 관람으로 공간도 관람객들의 풍부한 감상의 폭도 쇠퇴해 버리고 있다.

플레이스막은 앞서 이야기 한 것들에 대해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서울의 연남동이라는 주거지역을 연구지로 삼으면서, 예술 불모지에 대한 대안적 역할의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플레이스막의 기획전시들은 예술공간을 다소 불편하게 여기던 기성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전시공간에 대한 이질감의 박탈과 학교 밖 배움의 공간으로 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기간 동안 공간에 작가가 상주하며 대중들과의 만남을 갖게 됨으로써 작가에게는 열린 공간의 제공을, 관객에게는 예술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확장된다. 이후 플레이스막은 다양한 장소에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플레이스막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예술로의 소통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제 4막: 낯선 공간의 낯익은 문화 공간, PLATOON KUNSTHALLE SEOUL의 탄생]

플레톤 쿤스트 할레는 2000년 독일 베를린에 유럽본부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아트 커뮤니케이션 '플레톤'의 작품으로, 전세계 3,500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09년 4월 11일 플레톤 쿤스트할레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는 아시아 서브컬처의 새로운 거점으로 새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이 주는 역동적인 모습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는 한국은, 특별히 한국만의 전통문화, 현대문화와 함께 미국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서울의 문화가 플레톤 아시아지역 대표인 톰 뷔세만이 느낀 첫 느낌이었다고 한다. 플레톤 쿤스트할레가 처음에는 일본에 갈 수도 있었지만, 특히 서울에 오게 된 것은 톰 뷔세만이 이런 묘한 감흥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서브컬처의 장소인 홍익대학교 앞이나 서울의 독특한 거리를 제쳐두고, 서울 중에서도 특별히 소비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강남 한 복판에 '플레톤 쿤스트할레'가 오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서브컬처와는 거리가 먼 상류 소비문화의 중심지인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플레톤 쿤스트할레'의 아시아 기지를 싱가포르 외에도 전라남도 광주에도 설립을 했는데, 한국의 전통문화가 상당수 잔재 한 곳인면서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플레톤 쿤스트할레의 등장

동시에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통해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울과 광주에 설치된 이유 중에는 ‘플레톤 쿤스트할레’의 이념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이 중에는 도시에 중심에 위치해 세워지게 되면서 도시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도시 생활을 확보하는 기회와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의 가치를 확대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5막: PLATOON KUNSTHALLE SEOUL]

플레톤 쿤스트할레의 연면적은 943㎡로 1층에는 홀과 바, 쇼 케이스, 2층은 스튜디오와 북 갤러리, 3층은 사무실과 세미나실, 옥상에는 야외 바(Bar)가 있다. 특별히 플레톤의 구조와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 공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 건축물의 완고하고 획일적인 형식의 아파트, 빌딩, 초고층 건물에서 느껴지는 콘크리트의 중압감 대신에, 고정된 공간이 답아내지 못했던,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형태 중 하나를 ‘컨테이너 박스’로 정의하면서, 이것을 통해 “서브컬처 운동”의 성격을 표출하고자 한다.

모든 문화가 담긴 ‘복합문화월드’인 이 Box의 기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의 해상 수송용 컨테이너이다. 10피트(4개), 20피트(5개), 40피트(19개)짜리를 필요에 따라 개조해 용접하고 일부에 계단과 다리, 출입문을 붙였다. 기본은 40피트짜리(가로 12m, 세로 3m, 폭 2.6m)로 구성된다. 1.6mm 두께 요철강판과 4.5mm 사각 강관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본래 군수물자를 간편하게 수송하기 위해 고안된 박스라 단순하지만 30톤의 내용물을 담을 만큼 견고하다.



플레이스막과 주민의 공동 프로젝트



플레톤 쿤스트할레 내부 중심의 열린공간

내부의 컨테이너 벽은 석고보드와 유리섬유로 단열처리하고 알루미늄으로 마감했다. 천장에는 2.5m 높이를 확보하고 각종 배선, 배관과 에어컨을 설치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군용 매트리스 크기의 의자 겸용 테이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테트리스 블록 의자, 세우면 안내석, 높이면 연단이 되는 집기 등을 갖춰 군대의 막사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의 천장은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자연광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다. 설계자 백지원씨는 “경제적·친환경적이며 무엇보다 이동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공사는 6 달 만에 끝났지만 건물 연구에 1년, 구조 설계에 석 달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또한 열린 공간이자 스트리트 문화의 ‘연결 장소’라는 의미를 담은 설계를 했는데, 출입문인 대문이 따로 없는 것에서 그 의도를 느낄 수 있다. 동시에, 길을 지나는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박스는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다. 바닥은 아스팔트, 건물 밖 도로와 경계가 없는 듯한 효과를 준다. 틀에 맞춰져 정확히 수치가 맞아 컨테이너 속성인 규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쿤스트할레는 말 그대로 규격의 대명사인 컨테이너 그 자체이다. 그러나 철저히 열린 공간으로 꾸며, 그 폐쇄적인 이미지를 뛰어 넘는 시도를 보인다. 수직 개폐형의 출입구를 위로 젖혀 두면, 사방팔방으로 내부가 보이게 된다.

[제 6막: 연남동에 핀 꽃: 플레이스막의 이슈 프로젝트]

플레이스막은 기획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비오토프(Biotope)”라는 매개를 포함시켰다. 비오토프는 도심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말한다. 작은 규모(수경화분)부터 큰 규모(서울 숲)까지 포괄적인



주민에게 개방된 플레이스막 프로젝트

의미를 가진 비오토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요소이긴 하지만 환경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과 오염으로 먹잇감을 잃고, 서식지를 잃은 생물들에게 이동통로(Eco-bridge)나 연못, 생태공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자행해 온 환경에 대한 이기적인 행태와 그 결과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대두로 한 사회적 갈등에 몸서리치는 마포구, 동산 하나 찾을 수 없는 회색 빛깔 연남동에 플레이스막이 비오토프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막비오프젝트는 플레이스막, 비오토프, 프로젝트를 합성한 신조어다. 플레이스막이 주최하고 시민들이 참여한다. 2010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진행된다. 막비오프젝트는 친환경, ECO, Well-being 등 이미 익숙해진 환경보전의 의미에서 벗어나 “환경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과 사람의 관계, 그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 또 다시 생성되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관심은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단순한 시각을 넘어,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믿는다.

막비오프젝트 첫 번째 이야기 ‘갓다!주세요’는 주민들에게 어려운 답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주민들과 소통의 활로를 개척한다. 공간에 함께 앉아 작은 우주를 만드는 행위는 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많은 이들이 예술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예술에 대한 수많은 양상을 삶 속에 피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막비오프젝트는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환경프로젝트들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 7막: 신사동의 움직이는 컨테이너 박스]

강남, 신사동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들은 언제나 상업과 소비에 익숙해 있다. 그들에게 문화 자체가 일상의 ‘소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들 모두에게 ‘문화’의 중심에는 강남만의 소비 문화가 팽배하게 자리잡아 있으며,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녹아있다. 또한 강남, 신사동의 낮과 밤은 언제나 화려하다. 반듯한 도로 선을 따라 정돈된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한다. 화려한 개별의 건물과 그 안에서 생겨나는 볼거리는 강남과 신사동 지역의 독특한 도시 이미지가 되었다. 하나하나 콤팩트한 공간 이미지와 그 안에 생겨나는 사람들의 활동과 영역은 이 도시의 화려함을 대변해준다.

플레톤 컨스트할레는 이런 강남의 성격과 비슷하다. 문화와 소비는 면밀히 엮히어, 이 공간을 점유하는 기본 시스템이 된다. 공간은 자연스럽게 예술문화와 소비문화가 만들어 낸 화려한 ‘작은 강남’이 된다. 예술과 전시, 스튜디오를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 기획자들은 플레톤을 찾는다. 전시기간 동안 이 공간을 점유하며 예술과 표현,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한다. 공간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다. 단지 그 기간을 점유하는 개별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롭게 정의될 뿐이다. 정확한 건축적 스케일로 이루어진 획일된 선이 만든 공간 내에서, 결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움이 수시로 공간을 재 정의 한다.



일상과 예술, 관람과 상업, 작업공간의 공존

소비와 생산에 익숙한 지역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 공간에 적응해 간다. 이 지역에 활동하는 볼특정 다수가 필요로 하는 예술과 놀이 문화, 그리고 소비 생산구조를 반영한 플레톤은 지역 자체에 녹아있는 문화 전도사가 된다.

그들만의 언어로 난해하며 이해 불가능하던 예술의 영역은 그 지역이 갖는 기존의 소비 문화와 어우러져 ‘다가가기 쉬운’ 예술의 영역으로 재 평가 된다. 주민 혹은 인근 직장인들은 누구나 쉽게 지역을 오가며 플레톤을 들을 수 있다. 낮과 밤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르게 정의되는 플레톤 안에서, 그들은 매일의 신선함을 경험하고 적응한다. 낯선 예술의 장벽은 그 공간에 활동하는 작가와 공간, 일반인이 어우러짐으로 인해, 허물어 질 수 있다. 전체적인 주민의 문화 수용 범위와 예술 수준을 높이는 데에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 예술 문화의 접촉에 갈등을 느끼던 지역민에게 새로운 꽃이 되고자 하는 플레톤은 ‘문화 창조’의 시도’ 임과 동시에 ‘도시 문화의 습득’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겸용한다.

[제 8막: 도시 속 보물, 문화공간의 확장]

플레이스막과 플레톤 컨스트할레는 예술문화의 중심 지역에서는 조금 벗어난 예술의 불모지에 세워진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플레이스막은 상주인구 2만 명의 연남동이라는 주거지역을 연고지로 삼으면서, 예술의 불모지에 대한 대안적 역할의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 연남동은 홍대와 연희동이라는 문화의 핵심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다. 연남동은 홍대와 연희동에 문화의 연속 사이에서 정체된 문화성을 지니고 있다. 이전까지 홍대와 연희동의 문화 연결고리 역할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연남동은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오래된 골목과 정겨운 옛 풍경, 기차길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는, 개발과는 거리를 둔 도시이다. 문화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이 공간에 플레이스막은 신선한 호흡을 선사했다. 좁은 골목길 따라 세탁소, 시장 사이로 한 층의 세평 남짓한 열린 공간이 바로 그곳이다. 언제나 예술행위와 열띤 예술가의 토론이 이어지는 곳이다. 주민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예술가와외의 거리감을 좁혀간다. 아이들은 골목길 따라 정겨운 놀이에 흠뻑 빠져있고, 플레이스막 역시 아이들에게 놀이터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술의 일상화를 경험한다. 문화와는 동떨어진 연남동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도시의 문화적 흐름이 스며들어온다. 천천히 카페가 들어



플레이스막 주변에 문화, 상업 확대

서고 사람들이 모인다. 인위성이 소멸된 자연스러운 문화의 확장과 소통. 예술행위에 대한 이 작은 욕구는 도시를 자연스럽게 확장시켰고, 동시에 주변 문화에 연결고리 역할이 가능케 하였다. 연남동은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곳엔 플레이스막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플레톤 쿤스트할레 역시 강남, 신사동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변화의 잠재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소비와 상업이 중심이던 이 도시에 가장 가치 있는 문화의 행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화의 생성과 소통, 교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의의가 있다. 이 작은 창조적 행태는 도시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건물이 다양성을 대변하는 듯했던 도시에 '문화적 다양성'은 또 다른 신선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칫 정체될 수 있던 소비 문화는 그 이상의 예술 문화와 어울려 이질적이지 않은 예술공간의 탄생을 자아낸 것이다. 위의 두 공간 모두 예술가의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을 동일하게 여긴다. 플레이스막과 플레톤(Artist Lab) 모두 작가가 공간에 상주하여 대중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작가에게는 열린 공간의 제공 및 예술의 실험과 실현의 장소가 된다. 즉 대중과 예술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장벽을 허무는 배경이 된다.

동시에 이질감의 박탈은 도시에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였다. 딱딱한 예술공간을 다소 불편하게 여기던 기성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기존 전시공간에 대한 이질감의 박탈과 체험 공간으로의 재해석의 가능성을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건축가, 도시계획가에 의해 정의되던 문화공간의 영역과 틀, 위치에 대한 고정된 틀을 깨주는 중요한 시도임을 시사한다. 고정되고 변화되기 어려운 이전의 문화공간의 틀은 일반인들에게 예술의 벽을 높이게 하고, 소통의 단절을 초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벤트적 사치성 문화 경험은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비밀상적이며 일탈적인 행위로 인식되던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문화공간은 점차 Soft해지고 있다. 규격과 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상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어휘로 일반인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문화의 연속과 연장, 확장을 가능케 하였다.



쿤스트할레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전이

또한 항상 열려있는 공간 즉, "열린 공간이자 스트리트 문화의 연결 장소"라는 개념의 문화공간은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며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플레이스막: "막"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언제라도 건너치고 들어올 수 있는 편안한 장소. +플레톤 쿤스트할레: 대문이 따로 없다. 출입구 대신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박스는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다. 바닥은 아스팔트. 건물 밖 도로와 경계가 없는 듯한 효과를 준다.)

계획자와 일반인의 소통은 공간의 잠재적 가변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새로운 문화공간은 언제나 불특정 다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상의 다양성과 잠재적 확장의 여지를 둔다. 그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그 이상의 커뮤니티, 코드와 이슈를 던져주는 문화적 창조 행위는 지역 자체에서 호흡하며 지역민과 소통한다. 이처럼 고정된 문화공간은 고정된 영역을 벗어나 주민의 요구에 맞춰 예술과 일상이라는 상이한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적 예술공간과 이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플레이스막: 대안예술 공간, +플레톤 쿤스트할레: Sub culture를 각각의 키워드로 내세우며 지역사회에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문화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이 삶으로 들어오고 풍요롭게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문화와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묻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의 재생, 지속가능한 문화 창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려는 움직임.

이 중심에는 작지만 일상적이며, 스스로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문화 공간'의 힘이 있다.